

초등무용교육의 미래 방향성 탐색*

홍예주** · 서예원***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초등무용교육의 가치
- III. 초등무용교육과정의 변화

- IV. 초등무용교육의 미래 방향성
참고문헌
Abstrac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무용은 생명력을 바탕으로 원초적 움직임과 함께 개인의 의식과 역사, 문화, 사회를 몸으로 담아내며 시공간 안에서 희노애락을 표현한다. 인간 삶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무용은 다문화 국가로 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개인간, 문화간, 사회간 신체언어로 상호소통,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송혜순, 황명자, 2017, p. 125)이며 인간 내부의 미적 감성을 창조적 움직임으로 표현하면서 인간을 변화시킨다. 또한 교육의 목적이 인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Dewey, J., 1916; 이윤경, 조미혜, 2016, p. 112에서 재인용) 무용은 사람의 몸과 마음, 시간과 공간, 사회와 문화를 움직임에 담아 표현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문화수용력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적극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면서(송혜순, 황명자, 2017, p. 125) 타 문화예술과 차별성을 가지며 교육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무용활동을 통해 바른 자세 습득, 신체지각 및 자기 표현능력 향상, 자기수련능력 함양과 함께 관찰능력, 탐구능력, 상상력, 창의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배려, 존중, 협동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홍예주, 서예원, 2022, p. 10) 또한 무용은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사고의 유연성, 리듬감, 공감, 지각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에 긍정적 영향(김정희, 이강순, 2018, p. 95)을 주며 이상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기여(이순임, 2001, p. 10)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무용교육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1946년 교수요목기를 거쳐 제1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체육교과 내 단원에서 교육되고 있으며, 그 명칭도 리듬놀이, 춤놀이, 무용, 리듬 및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2 제주국제댄스포럼에서 발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 주저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교수

*** 교신저자, 청주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nikia@cje.ac.kr

표현운동, 표현활동, 표현 등으로 제시(교육부, 2015; 문교부, 1988; 조미혜, 오수학, 2004)되어 오고 있다. 교육과정은 2007 개정 이후로 달라지는데, 기능 중심의 ‘무용을 위한 교육(education of dance)’에서 가치 중심의 ‘무용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dance)’으로 패러다임 전환(이호철 등, 2021, p. 75)되었으며 2015 개정부터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역량중심 교육이 실시(유정애, 2016, pp. 262-263)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현재 2022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오랜 기간 체육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되어진 무용의 성장과 발전은 미진하며(서예원, 2013; 김보미, 유정애, 2014, p. 138에서 재인용) 무용교육의 미래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학교 현장 교사들은 무용수업에 긍정적이지 못하며(김향, 박윤희, 정원정, 2018, p.75) 교수법, 지식부족, 교사의 무관심 등(박수현, 2014, p, 51; 류성근, 2018, pp. 1-2; 서예원, 2003, p. 29)과 함께 자신감 결여로 현장 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배명훈, 2022, p. 269)이다. 뿐만 아니라 홍애령(2017)은 학교 현장에서 표현활동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으며 정희자(2017)는 실제 수업을 실시하더라도 기능 중심 수업으로 학생들의 표현능력 발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전인교육과 맥을 같이하는 학교 무용교육(배명훈, 2022, p. 262)의 가치 추구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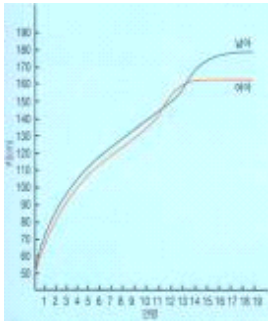
따라서 초등무용교육의 미래 방향성 탐색을 위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학교 무용과 관련된 각종 학술연구자료를 통해 학교 무용교육의 문헌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초등무용교육의 가치, 2015 개정까지의 초등무용 교육과정 흐름과 함께 미래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초등무용교육의 가치는 무엇인가?
- 둘째, 초등무용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 셋째, 초등무용교육의 미래 방향성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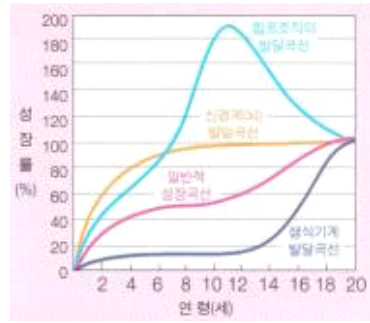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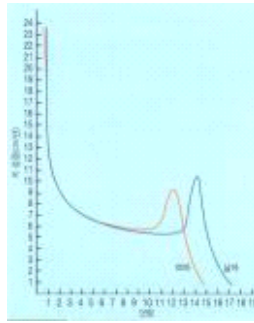
II. 초등무용교육의 가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부터 12세까지로 아이들의 생활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면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적 자아 발달과 근면성을 발달시키는 등(이호철 등, 2021, p. 431)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신체는 외형적 측면에서는 <그림 1(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만하게 발육하고 있어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11-12세 경 여아의 신체발육은 <그림 1(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에 비해 우세한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적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사춘기가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약 2년 정도 먼저 시작하기 때문으로 12-13세경 역전(김미예 등, 2007, pp. 162-163)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시기는 <그림 2> Scammon의 발달곡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경계의 90% 이상이 형성되며 성인의 2배로 증가하는 림프계와 함께 내분비선의 왕성한 활동으로 성 성숙이 동반되는 사춘기로 이어지게 되며(앞의 글, p. 20) 남 12-14세, 여학생 10-12세 초등학교 고학년이 포함된다(이호철 등, 2021, p. 439)



〈그림 1〉 연간 신장의 발육(좌)과 속도(우) 곡선
(김미에 등, 2007, p. 163)



〈그림 2〉 Scammon의 발달곡선
(앞의 글, p. 15)

인지적 측면에서는 초 1, 2학년의 경우, 눈앞의 구체적 대상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나 가설상황, 추상 개념은 이해하지 못하고 초 3, 4학년에는 사물의 객관적 지각, 추론 능력 및 스스로의 심리 과정을 이해 하게 된다. 초 5, 6학년에는 논리적 문제해결, 과학적,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여 자유, 정의, 사랑 등과 같은 추상적 원리와 이상을 이해할 수 있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단계(이호철 등, 2021, p. 434)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성이나 공동체 의식의 경우, 주변 사람들과의 활발한 정서 교류의 장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것은 아동이 주변 환경과 정서교류 욕구가 강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시기 정서교류, 욕구충족의 결과는 청소년기 사회성과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아동, 청소년기 사회, 정서적 발달은 인생 전반의 삶과 관련(노정식, 2017, p. 14)된다.

이순임(2001)은 이러한 신체적, 인지 및 정의적, 사회적 특성을 가진 아동들에게 신체 활동량은 많이 제공하되 부분적 운동보다 전신운동이 좋으며 고문수(2012)는 아이들의 경우, 신체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지 못하므로 저강도나 중강도 수준의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대상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성향, 즉흥적, 충동적인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이 시기에 정서지능을 포함한 인간의 감성적 능력과 성향의 틀을 형성할 수 있는 경험과 탐구의 과정이 제공되는 교육(이순임, 2001, pp. 17-19)이 요구된다. 무용의 경우, 학생들의 신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을 신체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면서 정서 순화(최예원, 정승혜, 안병주, 2014, p. 955)와 함께 창의적 표현 능력, 탐구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심미적 능력, 공동체의식 함양 등 신체적, 인지 및 정의적, 사회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노정식, 2017, p. 13; 최예원 등, 2014, p. 955; 홍예주, 서예원, 2022, p. 10)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무용에 참여하면서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를 습득하게 되는데, 무용수행을 위한 바른 자세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치밀뼈의 뼈세포방 내 뼈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장골의 성장판 자극을 촉진(박경한, 김이석, 윤호, 김영남, 권기호 역, 2009, pp. 38-39)하면서 발육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신체를 획득하게 하고 균형적으로 발달하게 하는 이상적 역할을 한다(노정식, 2017, p. 15). 한진희(2001)도 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성장 발육이 왕성한 학생들의 신체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무용활동에 참여하

면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신체 지각과 표현능력 향상으로 발육이 촉진되고 리듬과 함께 움직임을 수행하면서 자기통제능력 신장과 반복 연습을 통한 자기수련의 의미를 학습한다는 것 등으로 그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림 3〉 장골의 구조와 뼈의 길이 성장
(Robert & Steve 저, 박경한 등 역, 2009, pp. 38-39)

인지 및 정의적 측면에서 무용 활동은 학생들의 정서, 표현, 탐험에 중점을 두며 무용에 대한 이해 및 흥미와 함께 자신감, 만족감 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며 (Morgan, R., 2004; 정희정, 2021, p. 75, 재인용)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정서적 성숙, 창의성 신장에 긍정적 영향(박수현, 2014, p. 47)을 준다. 이러한 무용은 특히, 발육시기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느낌이나 감정, 생각을 움직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창작활동 속에서 관찰능력, 탐구능력, 상상력, 창의력 등을 신장시켜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며 무용활동 속 적극적인 자기표현으로 성취감, 만족감, 자존감 등이 확장되는 것으로 인지 및 정의적 측면에서 무용의 가치와 의미를 요약할 수 있겠다.

사회적 측면의 경우, 학교에서 무용활동은 대부분 혼자보다는 여럿이 활동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함께 하는 상호작용 시간을 통해서 사회성 학습과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노성식, 2017, p. 22; 이진선, 2015, p. 39; 정희정, 2021, p. 65). 다수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무용활동이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학급활동, 교사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나안숙, 2014, p. 102; 이진선, 2015, pp. 39-41)과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노성식, 2017, p. 22)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무용은 함께하는 공간, 시간 및 생각의 공유로 공동사회에 대한 이해가 촉진되며 모둠활동 속 배려와 존중, 협동심,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친구들의 무용활동 발표나 무용 감상 시간을 통하여 문화예술 향유 방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이 마음의 힘을 키워 자기 성장을 돕고 동시에 밝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학교 무용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III. 초등무용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에서 1946년 교수요목기를 거쳐 체계화된 제1차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 2015 개정에 이르기까지 9번의 개정과정을 거쳐왔으며, 현재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있다. 교수요목기의 경우, 교육과정 문서도 마련되지 않았으나 제1차 교육과정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과 체조라는 교과 명칭이 초등학교에서는 보건, 중학교에서는 체육, 보건,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으로 변경되었다(이호철 등, 2021; 조미혜, 오수학, 2004). 무용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초, 중등 체육교과 내에서 체육의 한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제1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체육교과 내에서 무용은 <그림 4>에서와 같이 초등의 경우 리듬놀이, 춤놀이, 무용, 리듬 및 표현운동, 표현활동,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정희, 이강순, 2018; 문교부, 1988; 유정애, 2016; 함종규, 2004).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차 교육과정은 체계화된 교육과정이며 국가 기준의 교육과정으로 놀이 중심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무용과 보건은 각각 리듬놀이와 위생으로 제시되었으며 체조놀이, 놀이, 리듬놀이, 위생으로 구성되었다(이순임, 2001, p. 11; 유정애, 2007, p. 79). 이 중 무용은 리듬놀이에 해당하며 다양한 표현 방법보다는 단순한 흥내내기, 노래 맞추기, 표현놀이에 국한(김보미, 유정애, 2014, p. 139)되었다. 2차 교육과정은 생활 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교과 명칭이 모두 체육으로 통일되는 시기로 체조놀이, 놀이, 춤놀이, 보건위생으로 구성(김정희, 이강순, 2018, p. 98; 이순임, 2001, p. 11)되었다. 2차 교육과정은 1차 때 무용에 해당하는 리듬놀이는 춤놀이를 바꾸어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자 하였으며 리듬놀이, 표현놀이는 유지되었고 민속무용과 감상이 제시(김보미, 유정애, 2014, p.139; 김정희, 이강순, 2018, p. 97)되었다. 3차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고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시기(이호철 등, 2021; 유정애, 2016)로 기초체력운동, 기계운동, 육상운동, 공운동, 수영, 무용, 보건으로 구성(이순임, 2001, p. 11)되었다. 2차 때의 춤놀이는 무용으로 제시되었으며 리듬놀이, 표현놀이는 민속무용, 표현무용으로 변경되었고 민속무용의 경우, 외국과 한국의 민속무용 활동으로 군무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김보미, 유정애, 2014, p. 139) 감상은 삭제(김정희, 이강순, 2018, p. 98)되었다.

4차 교육과정은 3차 교육과정의 체계와 비슷하게 기본운동, 게임, 무용과 기계, 계절 및 민속, 구기운동 그리고 육상, 보건으로 구성(유정애, 2016)되었다. 3차 때의 무용은 그대로 제시되었으며 지도의 내용은 민속무용, 표현무용으로 1, 2학년은 간단한 움직임으로 노래에 맞추는 놀이, 3, 4학년은 민속무용과 함께 주변의 현상 표현하는 활동, 5, 6학년은 여러 특징의 느낌 표현하기와 무용 발표로 단순한 표현보다는 느낌을 표현하도록(김정희, 이강순, 2018, p. 99) 하였다. 4차 때의 무용은 리듬 및 표현운동으로 개칭되었고 움직임 교육의 도입으로 기본움직임 제시와 함께 리듬운동과 표현운동의 비중이 증가된 시기이다. 또한 움직임의 원리, 창의적 학습방법의 제시와 함께 1, 2학년은 통합교육, 3-6학년은 무용의 특성과 표현법을 이해(김보미, 유정애, 2014, p. 139)하도록 구성되었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체계를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심동적 영역에 기본운동, 리듬 및 표현운동, 기계운동, 계절 및 민속운동이 제시(이순임, 2001)되었다. 6차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는 시기의 개정으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기본운동, 리듬 및 표현운동, 기계운동, 게임, 계절 및 민속운동, 체력운동, 보건

(이순임, 2001, p. 11)이 제시되었다. 무용의 경우, 5차 때의 리듬 및 표현운동이 유지되었으나 지도 내용은 신체활동, 표현활동, 감상활동으로 구성되었고 창작활동 중심의 내용들이 제시(교육부, 1992: 김정희, 이강순, 2018, p. 100에서 재인용)되었다.

7차 교육과정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초, 중등 교육과정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시(이호철 등, 2021, p. 74)한 시기이다. 3, 4학년의 경우, 체조활동, 게임활동, 표현활동, 보건으로 5, 6학년은 체조활동, 육상활동, 게임활동, 표현활동, 체력활동, 보건이 제시(유정애, 2007, p. 111)되었다. 무용은 표현활동으로 개칭되어 창의적 신체능력과 표현방법을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문화 뿐만 아니라 세계 민속춤을 학습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김보미, 유정애, 2014, p. 140)하도록 하였다.

제1차 (1954-1963)	체조놀이, 놀이, 리듬놀이, 위생	제6차 (1992-1997)	기본운동, 리듬 및 표현운동, 기계운동, 게임, 계절/민속운동, 체력운동, 보건
제2차 (1963-1973)	체조놀이, 놀이, 춤놀이, 보건위생	제7차 (1997-2006)	3,4학년 체조활동, 게임활동, 표현활동, 보건
제3차 (1973-1981)	기초체력운동, 기계운동, 육상운동, 공운동, 수영, 무용, 보건		5,6학년 체조활동, 육상활동, 게임활동, 표현활동, 체력활동, 보건
제4차 (1981-1987)	기본운동, 게임, 무용, 기계운동, 계절/민속운동, 구기운동, 육상운동, 보건	2007/2009 개정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가활동
제5차 (1987-1992)	심동적영역(기본운동, 리듬 및 표현운동, 기계운동, 게임, 계절/민속운동),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2015개정 (현재)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그림 4〉 초등학교 무용교육과정의 변화
(김정희, 이강순, 2018; 문교부, 1988; 유정애, 2016; 함종규, 2004)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수시적, 부분적 개정방식을 실시한 첫 번째 교육과정으로 기존 운동기능중심 교육에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년군제로의 변경과 함께 대영역은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동, 여가활동으로 제시(유정애, 2016; 이호철 등, 2021)되었으며, 무용은 7차 때의 표현활동이 유지되었다. 특징으로는 중영역이 확장되고 리듬체조, 음악줄넘기, 꾸미기 체조 등의 내용이 첨가되었다(김보미, 유정애, 2014, p. 140)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모색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제시나 성취기준, 다양성과 독창성의 개념을 함양시키는 것(김보미, 유정애, 2014)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며 창의, 융합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호철 등, 2021)이다. 교과역량은 건강관리능력, 신체수련능력, 경기수행능력, 신체표현능력이며 대영역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으로 제시(유정애, 2016)되었다. 7차, 07, 09 개정에서의 무용관련 내용은 ‘표현’이라는 용어로 제시되었으며 핵심개념과 함께 일반화된 지식, 영역, 기능을 제시하여 교과역량을 증진(김정희, 이강순, 2018; 이호철 등, 2021)시키고자 하였다. 표현영역은 3, 4학년 군에서 움직임 언어, 리듬표현이 제시되었으며, 5, 6학년 군에서는 민속표현, 주제표현을 통해 표현의 의미, 표현양식, 표현창작, 감상 및 비평하는 태도를 함양(교육부, 2015;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22)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9차례에 걸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화된 인재상과 함께 다양한 개념, 심화된 활동으로 학생들의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함양(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22)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신민혜, 조남기(2015)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과역량을 함양시키기엔 무리가 있으며 윤기준(2018)은 수업에서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이 교사들을 중심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무용은 학교가 아닌 무용학원이나 문화센터 등과 같은 사교육 기관에서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등록하여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체육교과 내에서 교육되고 있는 학교 무용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다고 하겠다.

IV. 초등무용교육의 미래 방향성

초등무용교육의 미래 방향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무용교육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두 번째는 무용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에 대한 논의, 세 번째는 무용지도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논의이다.

학교 무용교육의 미래 방향 첫 번째는 교과목으로서 무용교육의 정체성 확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용교육의 개념을 신체움직임 교육의 영역에서 확장해서 다양한 교육적 가치로 확대하고 재정립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무용은 신체에 의한 교육으로 몸과 움직임이라는 체육과의 동질성 측면만이 강조되어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체육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무용이 신체를 통해 움직임을 수행하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전문 분야인 무용이 독립교과가 아닌 체육교과의 한 영역 안에서 오랜 기간 교육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가 제기(김정희, 이강순, 2018; 박수현, 2014; 서예원, 2003; 최예원 등, 2014)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용이 제1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1954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까지 체육교과 내 하나의 영역으로만 제시되어 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함종규(2004)는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의 성격이나 질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교육의 내용은 학생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사회의 질적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변화, 변혁, 미래 전망의 추세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였다. 무용교육은 심미적 감성 역량 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 자기관리, 의사소통, 공동체, 지식정보처리 역량 순으로 관련성이 깊으며(홍애령, 조미혜, 2019, p. 561) 무용이 새로운 미래 교육역량 함양에 부합되는 교과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무용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무용이 독립된 교과로서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무용 교과의 독립 필요성(홍애령, 2020, p. 126)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무용교과 독립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방향성, 교육과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과 방법의 연구 확대, 정책이나 법제화 등과 관련된 지속적 논의와 연구도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는 학교 무용교육 역량강화와 함께 무용교육 효과 확산으로 이어져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과목으로서 무용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체육 교육과정 내 무용 관련 영역과 내용의 변화

가 필요하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현재까지, 그리고 22 개정을 앞둔 이시점에서 무용은 체육교과 내의 한 영역으로서 리듬놀이, 춤놀이, 무용, 리듬 및 표현활동, 리듬 및 표현운동, 표현활동, 표현 등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체육 교과 내에서 교육되고 있는 무용이 이러한 명칭이 아닌 ‘무용’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영역에서는 무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들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누락되거나 일부에 편중(홍애령, 조미혜, 2019, p. 559)된 것으로 나타나 중단원, 소단원에서는 교육목표와 방향에 부합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는 무용활동들을 구성하고 제시하여 무용 본연의 가치 실현과 함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적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및 창의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의 근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22)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창의와 인성을 지닌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무용교육은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무용교육은 예술적·미적 교육이며, 신체적·움직임 교육, 개인적·사회적 교육, 문화적 교육, 통합 교육과정, 취업 전 교육에 효과적인 교양교육이며, 이러한 무용예술교육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성 개발 및 무용예술과의 통합은 전인적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Brinson의 주장은 무용교육이 인간과 인간, 환경 등의 관계성을 중요시하고 그 안에서 조화와 포괄·통합성을 추구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예술교육임을 지지하고 있다(문영, 서예원, 2017).

초등 무용교육의 미래 방향 두 번째는 다양한 무용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의 개발이다. 초등교육현장에서 무용은 엘리트 교육이 아닌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용 테크닉 향상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전술한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데 이는 다양한 무용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더욱이 성장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은 그 목적을 ‘댄스 리터러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용교육표준(2011, 2014)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목표로 ‘댄스 리터러시 개발’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댄스 리터러시란 ‘무용의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통합능력을 의미하며, 무용을 직접 체험하고 무용을 탐구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말하고, 쓰고, 보고 읽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서예원 외, 2013). 여기서 그 영역은 실행(춤추기), 창작(춤만들기), 감상(춤읽기), 소통(춤나누기)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실행’은 기술의 숙련뿐 아니라 신체 지각, 협응, 수행원리 습득을 의미하며 ‘창작’은 춤만들기를 통한 움직임 창안, 표현, 동작 구성, 창작원리 이해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감상’은 춤을 관찰하고 분석, 해석함으로써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통’은 춤을 통해 타인과 교감과 타 영역과의 교류, 통합, 공유, 사회문화적 의미 이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의미(앞의 글, 2013)한다.

무용교육의 지향점으로 댄스 리터러시를 제시하며 많은 연구(최의창, 2011; 임수진, 2015; 천혜미, 2016; 김현정, 2019; 김수인, 2021; 김연재, 2022; 김수영, 최의창, 2022)들이 이루어졌고 관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관련 연구들은 무용교육의 목표를 무용 기술 향상에서 벗어나서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개인의 성장을 지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초등무용교육이 댄스 리터러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 목표와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면 최근의 사회환경의 변화는 또다른 측면에서 무용교육에 혁신적인 내용과 방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만남의 방식이 다양한 비대면의 소통 방식으로 변화되었다(이주호, 정제영, 정영식, 2021, p. 39). 언택트 시대의 무용교육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 기술적 네트워크 연결망의 활용, 몸을 기반한 교육내용 등으로 교육적,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무용콘텐츠 개발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이유리, 2020, p. 16).

2020년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정의하는 미래 교육 비전을 주도하기 위한 교육혁신 다섯 가지 접근법을 제시(최경희, 2022, p. 21에서 재인용)하였다. 첫째, 학습의 과정에서의 재미있는 접근법(Playful)이다.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극적 사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의미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험적인 접근법(Experiential)으로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 삶에 응용할 수 있는 콘텐츠(프로젝트 기반, 연구 기반 학습)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컴퓨터를 사용한 접근법(Computational)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문제에 접근하고, 컴퓨터적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체화된 접근법(Embodied)으로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은 행동적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체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고 융합해야 한다는 다문화적 접근법(Multiliteracies)(앞의글, 2022, p. 21에서 재인용)이다.

이러한 미래교육의 방향성은 앞으로의 무용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재미있고, 실생활에 기반한 내용을 선택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미래의 무용 수업은 무용실 뿐만 아니라 가상이나 증강현실 등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수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들은 AI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별 수준에 맞는 무용 테크닉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실제 수업시간 속에서 교사들의 창의적 교수방법을 통해 이것을 다시 새롭게 변형, 발전시키며 창작할 수 있다. 즉, 창의적 블렌디드, 하이러닝 학습이 실현되는 것으로 동시에 학생들은 세계의 무용공연을 VR로 감상하며 체험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공간의 학생들이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함께 모여 무용을 창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활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서예원, 2021, p. 94).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원이나 기술 등이 부족하므로, 관련된 자원과 디지털 매체 조성, 타 분야와의 협업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콘텐츠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초등무용교육의 미래 방향 세 번째는 무용 지도자의 전문성 함양이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움직임을 가르치면서 무용의 가치와 함께 교과역량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무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무용을 교육하지 못하고 있으며(김미경, 2011, p. 118) 심지어 교수법이나 지식부족 등 무용지도 능력 부족으로(이순임, 2001, p. 42; 홍애령, 조미혜, 2019, p. 553) 무용수업 시간을 채우지 못해(김미경, 2011, p. 2) 기피하거나 꺼려하는 것으로(김정희, 이강순, 2018, p. 95; 박수현, 2014, p. 47; 서예원, 2003, p. 16) 보고되고 있다.

무용교육자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이 교사의 전문성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무용교사 전문성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무용교사의 전문성은 무용교육 분야에서 역량, 능력, 자질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었고, 그에 대한 역할과 구체적 내용이 연구되어져 왔다(문영, 2014, p. 14). 무용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그 구성 요인에 대하여 문영(2014)은 인간적, 도덕적, 정서적, 지각적 능력 등의 네가지 관점을 제시하였고, 무용 전문지식 기술, 교육적 전문지식, 학습자 이해, 예술성, 인성, 리더십, 타분야 지식 등 모두 7가지 요인을 포함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결국 무용을 교육하는 교사의 전문성이라 함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 예술적인 감성에 해당하는 예술성과 인성, 학습자에 대한 이해, 리더십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서예원(2016)은 무용수업 전문성에 대해 지식, 계획, 실천, 전문성 등의 4개의 대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지식은 무용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지식, 학생이해, 무용능력 등에 대한 지식, 계획은 수업설계, 실천은 학습환경 조성 및 학습운영, 수업실행, 전문성은 교수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으로 제시하였다. 홍애령(2017)은 초등 무용교육자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서 능력과 심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문영, 서예원(2018)은 무용동작과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신체적 기능, 무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교육학적 지식, 무용인·예술가·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마음, 교육자의 신념과 태도가 내면화되어 마음속에 고착된 심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전술한 무용교사 전문성 논의를 종합하면 무용교육자는 무용 동작, 기술 뿐만 아니라 예술적, 정서적, 인성 등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융합 능력과 창의적 교육을 결합하면 무용 기술, 예술적, 정서적, 인성, 융합능력, 창의력 등을 겸비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초등 무용교육에서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용분야 교육 전문성의 양적, 질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박영선(2007)은 현장 교원들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가 현장에 서기 전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비교사 양성기관에서 무용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확보가 중요하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의 경우, 전국에는 12개 교원양성기관이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에서 1개 대학만이 무용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교육대학에는 무용교육을 담당 교수가 체육교육과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원들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 교사교육연구 활성화 등(김정화, 송미숙, 조채은, 2022, p. 33)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무용은 체육교과 내 하나의 영역으로 교육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교대 체육교육과(전공) 내 무용교육을 담당하는 교수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는 예비 교원들의 무용교육 관련 역량 함양과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용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일반대학 무용과에서는 대부분 전문무용 영역과 실기지도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김명희, 2014, p. 25)되고 있으므로 초, 중등교사, 무용교육 관련 분야 강사 등 다양한 진로로 확대해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초등교육 현장에서 무용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1정 연수나 다양한 직무연수에서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적인 확장과 질적인 확장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용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용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이를 통해 무용분야가 더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경(2011). **초등무용 교육의 교과내용 및 운영실태를 통한 발전 방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미예, 구현영, 권인수, 김수옥, 김태임, 오원옥, 윤희옥, 이수연, 정승은, 조갑출(2007). **아동의 성장발달과 간호**. 군자출판사.
- 김명희(2014). 한국무용교육의 시대적 동행과 과제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1), 23-39.
- 김보미, 유정애(2014). 우리나라 초등학교 무용교육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3), 137-149.
- 김서진, 문영(2020).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술교육: 언택트 시대의 몸교육에 관한 소고.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8(3), 87-100.
- 김수영, 최의창(2022). 댄스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무용 잘 가르치기”: 의미 및 실행 향상 탐색. **한국무용학회지**, 21(4), 1-16.
- 김수인(2021). 댄스 리터러시에 있어 비판적 문화읽기의 중요성과 무용교육 사례에 대한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84(4), 25-52.
- 김연재(2022). **한국무용소양 함양하기: 댄스리터러시 기반 한국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원리**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정화, 송미숙, 조채은(2022). 초등무용 교육과정 분석 및 운영실태를 통한 발전방안. **한국예술문화연구**, 2(1), 33-43.
- 김정희, 이강순(2018). 초등학교 체육과 표현영역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역할. **교육논총**, 39(2), 279-289.
- 김향, 박윤희, 정원정(2018). 초등학교 교사의 무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한국무용연구**, 36(2), 73-94.
- 김현정(2019). 댄스 리터러시 개념틀에 근거한 한국무용 핵심요인의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36(2), 43-60.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2022). NCIC. <<http://ncic.re.kr/mobile/index2.do>, 2022. 07. 22.>.
- 고문수(2012). **초등체육수업론**. 교육과학사.
- 교육부(1992).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고시 제2015-74호[별책 1].
- 교육부(2022). **21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7, 2022. 07. 04.>.
- 나안숙(2014). 초등학생 무용참여자의 집단 따돌림 경험과 교우관계의 의사소통 및 지각된 소외감 간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31(1), 99-119.
- 노정식(2017). 무용활동 참여가 아동의 욕구충족과 사회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검증. **한국무용과학회지**, 34(1), 13-24.
- 류성근(2018). **중학교 체육과 표현활동 영역 분류 및 분석: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문교부(1988). **교육과정**. 보경문화사.
- 문영(2014). 무용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인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1), 14-15.
- 문영, 서예원(2017). 융합형 무용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모형 구조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75(6), 103-121.
- 문영, 서예원(2018). 융합형 무용교육자의 개념과 역량탐색. **무용예술학연구**, 69(2), 29-41.
- 박경한, 김이석, 윤호, 김영남, 권기호 역(2009). **인체**. 사이언스 북스.
- 박수현(2014). 2009개정 체육교육과정 표현활동 지도의 난점과 개선방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3), 45-57.
- 박영선(2007). **초등무용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배명훈(2022). 초등학교 체육교과서 무용교육의 내용분석. **한국응용기술과학회지**, 39(2), 233-245.
- 신민혜, 조남기(2015). 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시안에 따른 표현영역에서 창의역량 하위요인과 적용. **한국정책학회**, 13(3), 121-133.
- 송혜순, 황명자(2017). 예술교육전문가로서 핵심역량과 미래무용교육의 실천적 방안. **무용역사기록학**, 46, 113-134.
- 서예원(2013a). 초등무용교육의 전망과 과제. **무용예술학연구**, 40(1), 89-104.
- 서예원(2016). 무용수업 전문성 기준 탐색. **무용예술학연구**, 58(1), 51-63.
- 서예원(2021). 팬데믹 이후 대학무용교육의 변화. **무용예술학연구**, 84(4), 81-98.
- 서예원, 조은숙, 문영, 김윤진(2013). 무용교육표준 개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42(3), 21-49.
- 이순임(2001).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실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유리(2020). 언택트 시대, 무용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에 관한 문화적 해석. **문화예술교육연구**, 15(6).
- 이윤경, 조미혜(2016). 교육과정기별로 살펴본 무용교육 연구동향과 과제: 1975-2014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4(2), 111-141.
- 이주호, 정제영, 정영식(2021). **AI 교육혁명**. 시원북스.
- 이진선(2015). 초등학생의 무용활동 참여가 사회성,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지**, 15(1), 39-48.
- 이호철, 고문수, 김성곤, 박상봉, 박재정, 박종태, 배성제, 서장원, 신기철, 양갑렬, 최홍섭, 홍예주 (2021). **초등체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유정애(2007).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대한미디어.
- 유정애(2016). **체육교육과정 총론**. 대한미디어.
- 윤기준(2018). 차기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쟁점: 교육과정 구조를 중심으로. 2018 한국스포츠포럼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83-98.
- 조미혜, 오수학(2004). **체육과 교육과정과 평가**. 도서출판 무지개사.
- 정희자(2017).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표현활동이 초등학생의 리듬표현활동 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4), 75-89.

- 정희정(2021). 무용이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변인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 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38(2), 65-80.
- 천혜미(2016). **댄스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발레교육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최경희(2022). 학교교육의 변화에 대응하는 아동문학교육의 방향. *한국아동문학연구*, 43, 5-38.
- 최예원, 정승혜, 안병주(2014). 초등학생을 위한 무용교육 연구동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1), 947-957.
- 최의창(2011). 댄스 리터러시 혹은 무용소양: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목적 재검토.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1, 139-16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 연구-무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무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진희(2001). **초등학교 체육교과 영역 중 무용교육의 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함종규(2004).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교육과학사.
- 홍애령(2017). 초등무용 교육자의 정체성과 수업 전문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4), 107-118.
- 홍애령(2020). 한국 무용교육의 역사적 흐름과 영역의 재검토: 교육무용 지향에서 큰 무용교육 지향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4), 121-139.
- 홍애령, 조미혜(2019). 역량중진 체육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표현영역의 내용체계 및 역량요소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551-572.
- 홍예주, 서예원(2022). 학교 무용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22 제주국제댄스포럼자료집, 8-16.
- Brinson, G.P., Singer, B.D., Beebower, G.P.(1991). *Financial Analysts Journal*, 47(3), 40-48.
- Dewe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The Free Press.
- Morgan, R.(2004). Improvisation: Another way to move and dance. *Strategies*, 18(2), 19-20.

논문투고일 2023. 05. 12.

심사일 2023. 05. 24.

심사완료일 2023. 06. 05.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 of Elementary School Dance Education

Hong, Yeju* · Suh, Yewon**

J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elementary school dance education by collecting and analyzing various data, an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dance in school, which has been taught within the physical education subject for a long time, should now become an independent subject. Second, until dance i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subject, the name of the expression unit of physical education subject should be presented as dance. Third, in order to cultivate the professionalism of dance education of school teachers, it is necessary to secure professors in charge of dance education in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train dance educators by educating students on dance-related knowledge from other universities.

Keywords: Elementary School(초등학교), Dance education(무용교육), Curriculum(교육과정), Professionalism(전문성), Dance professor(무용교수)